

20대의 즐거움은 잠시 접어두고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김동엽님

합격수기

안녕하십니까, 31기 합격자 김동엽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수험생 분들의 수험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합격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이 환절기라 특히 감기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다른 수험생보다 며칠을 손에 보기 때문에 최대한 아프지 않게 몸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합격자들의 수기를 보면서 공부 방향을 잡고, 수정하기도 하면서 노력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어 수기를 작성합니다.

I. 서

저의 총 수험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약 1년 10개월)입니다. 무역에 관심을 두고 알아보던 중 우연히 관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됨으로써 저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2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20대에 누릴 수 있는 여러 즐거움을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크게 1차, 2차 그리고 기타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II. 본

1. 1차 시험

1차 시험을 끝내고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추천 공부 방법을 위주로 서술 하겠습니다.

① 관세법 - 75점

관세법은 75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1차 시험은 아무래도 법 그 자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법령집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FTA과목도 분량은 적지만 대비하면 분명 고득점을 받게 도와주는 과목이므로 꼭 미리 대비하실 바랍니다.

② 무역영어 - 70점대

저의 전공이 영어영문학이기 때문에 1,2차 시험을 통 털어 무역영어를 제일 수월하게 공부했습니다. 무역영어는 계속해서 3대 협약 (CIGS, UCP, INCOTERMS)의 출제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대 협약을 위주로 공부하시길 바라며 3대 협약에 대한 숙련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부분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은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내국소비세법 - 60점대

이 과목 또한 주세와 같은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의 경우 저에게는 계산 문제가 고득점을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의 계산문제는 공식을 이용한 대입문제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 대부분의 계산 문제를 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④ 회계학 - 50점대

회계학의 경우 위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반복했습니다. 특히 원가회계의 경우 처음에는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간과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재무회계만으로 과락을 면하기에는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뒤늦게 원가회계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꼭 원가회계도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써 이론을 익히고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고득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 2차 시험

작년 2차 시험을 6월 후반에 치르고 7월에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서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8월부터이며 이하에서는 각 과목별로 추천 공부 방법 및 저의 경험을 서술하겠습니다.

1) 관세법 - 67점

① 기본이론

관세법은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관세사님께서서는 처음부터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목차노트를 만들 것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차노트를 만들면서도 책볼 시간도 없는데 이 목차노트는 언제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목차노트가 본 교재 회독시간을 반으로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기본이론을 들으신 경우 이해하고 목차노트까지 만드셨다면 그 이상으로 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 심화강의

기본이론을 수강하는 데에는 하등의 의문이 없었으나 심화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제갈현근 관세사님을 찾아가서 심화강의의 필요성을 여쭙어 보았고 심화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이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법취지, 문제점, 개선방향등의 부차적인 문제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궁극적 목표는 책의 목차를 전부 암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의 전부를 암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암기를 시작하면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갈현근 관세사님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 받은 것이 저의 수험생활을 통 털어 가장 잘 한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③ 암기

저는 11월까지 4~5회독을 하고 12월 9일부터 본격적인 암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에 목차노트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내용만 먼저 암기하려 했던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관세법은 이미 수업을 들으신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목차노트를 만들어서 목차를 외우고 내용도 함께 암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의고사 시작 전에 환급특례법도 회독수를 늘려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실제 모의고사가 시작 되면 1,2월 경우 굵직한 과목들 추가로 암기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빠듯하고 3월 넘어가면서 부터는 범위가 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④ 시험후기

사실 처음에 문제지를 받아서 50점 문제를 읽었을 때에는 당황하였습니다. 50점 문제가 주체 자체는 평이했지만 많은 분량을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아는 내용이었고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저의 경우 제갈현근 관세사님에게 상담 받을 때 들었던 “목차를 모두 암기하라”는 말씀의 진의를 시험시간에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이미 머릿속에 목차가 모두 떠올랐고 막힘없이 서술이 가능했습니다. 관세법의 경우 총 18페이지를 작성하였습니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62점

기본적으로 관세율표 과목은 기본부터 심화 문제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전의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① 기본이론

HS 과목을 보자마자든 생각은 무조건 이 과목먼저 끝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1200개가 넘는 호의 용어와 수백 개의 주 규정을 보면서 미루다보면 결국 이 과목이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기본이론을 들으면서는 통칙을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통칙의 경우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 수험기간 중에 2번 정도 개정되어 다시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이론을 들으실 때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 비교적 암기하기 쉬운 호의용어나 주 규정은 미리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심화강의

기본이론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봐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저의 경우 최대한 법령집을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수식어의 경우에도 똑같이 외웠기 때문에 실제 모의고사나 시험을 볼 때에 가장 걱정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③ 암기

HS 과목의 경우 특히 많은 분들이 녹음 파일을 이용하시는데 저 또한 녹음파일로 매일 매일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저녁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했는데 이 때 음악을

들으면서 하지 않고 호의 용어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되뇌었습니다.

일부 주 규정의 경우도 녹음 파일을 만들어 보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책을 보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을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8월부터 시작한 암기는 10월 중순 쯤 HS의 대부분의 주 규정과 호의 용어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암기한 것이 수험생활 내내 HS가 저의 전략과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④ 시험후기

몇 해 전에 연속으로 16부 문제가 50점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험기간에는 사실 16부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보다 비중을 덜 두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 50점으로 나온 것을 보고 저는 바로 2번 문제부터 서술 했습니다. 16부를 제외하고 다른 부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암기하였기 때문에 시험시간에도 별로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6부도 주 규정과 호의용어는 암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설서와 관련된 내용을 빼고는 대부분 다 작성하였습니다.

3) 관세평가 - 50점

① 기본이론

관세평가의 경우 김00 관세사님, 김병수 관세사님의 이론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흔히 법의 내용만 보자면 관세법 30조 내지 35조만 규정되어 있어서 나중으로 미루어도 되는 과목이다라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 과목은 2년 전에는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작년에는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00 관세사님의 강의에서는 법적인 내용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였고 김병수 관세사님의 강의에서는 협정을 위주로 생각하고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저는 법보다는 협정의 내용을 좀 더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법의 내용만 가지고는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② 심화강의

심화에서는 기본시간에 이해하고 넘어갔던 협정의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세세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실제 법과

협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활용되는지를 보며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저만의 서술 방식과 접근 방식을 만들려 노력해 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협정의 내용을 어떻게 답안에 잘 추가해서 넣느냐는 이 시기부터 실제 시험보는 날까지 저의 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③ 암기

법, 령, 고시를 암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정의 경우에는 영어 원문에 대한 해석본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해석이 매끄럽지 못한 곳도 있고, 사례 문제의 경우에는 도무지 어떤 법, 령, 고시가 적용되는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전까지 관세평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끝난 상황이라면 10월~ 11월에 거쳐 법, 령, 고시를 암기하고 12월부터 협정을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만, 협정 내용 전체를 암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난이도도 급상승하기 때문에 김병수 관세사님의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표시해주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암기하기 바랍니다. 실제 답안지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④ 시험후기

관세평가는 이번 50점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모의고사 시간에 많이 겪어봤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안을 서술했습니다. 다만, 계산에 일부 착오가 있었고 협정을 너무 늦은 시기부터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의도 하지 않게 법 위주로 답안을 작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협정의 내용도 서술하였지만 알고 있는 내용도 시간 부족으로 적지 못해 시험이 끝나고 저득점을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번 시험 과목 최저득점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수험생 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협정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협정을 법만큼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무역실무 - 52.5점

무역실무는 최00 관세사님, 박병호 관세사님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① 기본이론

무역실무는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 권의 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권의 책을 갖고 단 권화를 하는 것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제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만한 중요한 이슈는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저는 기본 시간에 최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강사님의 책을 보시더라도 책의 분량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론 시간에 이해만 해도 충분히 성공적인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외환의 경우 저는 작년 9월 경우 수강하였습니다. 이 후 2개월 간 손을 놓고 있다가 12월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공부 방법은 무역실무 모의고사를 치를 때 마다 10점 이상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꼭 대외/외환을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② 심화강의

심화강의 시간에는 주로 3대 협약과 기본이론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대한 분량 때문에 목차노트를 만들지 않고서는 무역실무를 내 것으로 만들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3대 협약은 전문 그대로 외우고 나머지 보험 파트 등은 목차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협약의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띄고 있는 부분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여 서술시 키워드에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③ 암기

무역실무 암기는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역실무 과목의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고 바로 암기에 들어가면 뜬구름 잡는 격밖에 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무역실무의 경우 최대한 이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11월 까지 4~5회독을 하고 난 후에 암기를 시작하였고 오히려 암기를 하면서 그 전에 미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무역실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④ 시험후기

사실 저는 이번년도 50점 문제는 3대 협약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 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심에서 문제가 출제 되었고 주심 그 자체만의 내용에 더하여 3대 협약 중 UCP600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도 서술하였습니다. 나머지 10점 문제들은 평이했지만, 대외/외환문제를 거의 서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외/외환을 대비하셔서 무역실무를 전략과목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⑤ 문제풀이

1,2월에는 문제풀이 반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때 모의고사가 1/8의 범위로 나뉘어서 함께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 방법으로 인해서 막막하기만 했던 모의고사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과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재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의 경우에는 도입배경, 입법취지, 나아가서는 민법의 내용 등을 새롭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⑥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처음 등수가 마지막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1등을 하였어도 혹은 낮은 등수를 받았어도 최종적인 등수는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 모의고사만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 수험기간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령 해당 주의 모의고사를 잘 지르기 위해 아직 암기가 부족한 부분은 짚어두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 모의고사는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험은 전 범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서술방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문제 풀이 반에서 보게 되는 구성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 하시면 될 것이며 혹시 문제 풀이 반을 수강하지 않으실 수험생 분들도 모의고사 시작 후 모범답안과 과목별 최고득점자의 답안을 보면 서술 방식을 익히실 것입니다.

3. 기타사항

① 공부시간 및 생활패턴

저의 공부시간 및 생활패턴은 그 기점은 모의고사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 모의고사 전

모의고사 전에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강의가 있으면 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순 공부 시간을 따진다면 아마 5~6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때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공부습관과

집중력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 모의고사 시작 후

모의고사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독서실을 이용했습니다. 다만 독서실이 오전 9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시립 도서관에 오전 7시 30분까지 도착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대외/외환을 공부하였으며, 9시 경에는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독서실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있었으며 중간에 점심, 저녁시간 2시간은 쉬었습니다. 이때 순 공부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순 공부 시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습관이 되시면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더욱 순 공부 시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순 공부 시간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셔서 매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공부장소

처음 공부장소는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고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익숙한 자리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서둘러야 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 초까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고, 2차 시험까지 약 두 달이 남았을 때 1인식 독서실을 등록하였습니다. 이때는 강제로 서둘러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그 동안 몸에 자리 잡은 습관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독서실 특성상 오전 9시 이후 문을 열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오전 7시까지 도착하여 약 2시간 정도 대외/외환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독서실에 갔습니다.

③ 스터디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터디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오는 사람이 해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터디에서는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스터디는 모의고사와 같이 짜기가 알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장소입니다. 1,2년차 수험생이 3,4년차 수험생과 함께 스터디를 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오는 불상사가 초래될 것입니다. 만약 스터디를 하시게 된다면 다 년차 수험생은 한 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 구성원을 1,2년차 수험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④ 스마트폰

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주 스마트폰을 정지시켰습니다. 통신사에 요청하면 수신만 가능하도록 정지가 가능하며, 일주일후 자동으로 수신 또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전화를 하여 일시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게 되면 잠깐 쉬고자 하는 때에 어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기사를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휴식을 취한다는 핑계로 TV,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쉬고 나서 눈이 더 피로해 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은 수험생활 내내 전혀 필요치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휴일

휴일은 따로 정하지 않고, 1월부터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서 모의고사를 마치고 토요일만 집에서 쉬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흐름이 틀어질 것이 염려되어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휴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 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놓고 공부를 하던 중 월요일에 너무 힘이 들어 쉬고 싶어 진다면 월요일도 쉬고 수요일도 쉬게 될 것입니다. 분명 휴식도 중요하지만 쉬지 않고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다면 굳이 휴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식의 경우에도 컴퓨터, TV,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몸을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실 때는 눈을 감고 잠시 누워 있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⑥ 막막할 때

공부를 하다가 큰 장애물에 가로막힌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수차례 암기해도 암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건너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문제 때문에 나머지 5문제를 공부할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리 읽고 암기해도 모르는 부분을 건너 뛴 경우 그 날 저녁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짜꾸 잊어버리고 하기 싫어도 꼭 잠고 한 번 읽으면 그 날 저녁에 무엇인가를 해낸 자신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에 그 부분이 암기가 된 경우도 있고 자연스레 이해 된 경우도 있습니다.

III. 결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위에서 작성한 내용은 순전히 저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저의 공부 방법입니다. 은하들 수험생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면서 암기하는 방법, 눈으로 보면서 암기하는 방법, 소리 내어 읽으면서 암기하는 방법 등 수험생 각자의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기에서 보신 공부 방법이 본인의 방법과 유사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인지, 만약 본인의 스타일과 전혀 다르다면 이후 슬럼프가 왔을 때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공부방법이 맞는지, 암기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수험생의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등 어느 것 하나 확정적이지 않아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확답을 내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지치고 힘들고 불안합니다. 그러니 불안감은 잠시 접어두시고 눈앞에 펼쳐진 길을 열심히 걷다 보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하겠습니다.

31기 관세사 김동엽 드림